



2분기 정례 모임 및 제5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정세진 febc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 수상

6월 12일 여의도서 개최

바람직한 아나운서상을 이어가며 선후배가 정을 나누니 이 아니 좋을쏜가!

(사)한국아나운서클럽 2019년 2분기 정례 모임 및 제5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이 신임 채영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6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열빈에서 열렸다. 이날 KBS 제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정세진, febc 라디오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 아나운서가 제5회 황금메아리상을 받아 50여 명의 참석자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차인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문님을 비롯해 현역까지 많이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모임에 명찰을 새로 만들며 소속사와 직함을 없앴다. 아나운서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어울리자는 뜻이다.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후원금을 내주신



정세진(왼쪽) 송옥석 아나운서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황금메아리상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귀한 상이다. 수상자는 마음 다잡고 최선을 다하는지 곱씹으며 방송 더 잘하길 바란다. 황금메아리상이 아나운서가 존속하는 날까지 이어지기 바라며, 또한 호국보훈의 달 6월의 의미도 되새기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규홍 부회장은 황금메아리상 심사 기준 설명에서 “선정위원회(김규홍, 김상준, 채영신, 박민정, 황인우, 김창옥)를 구성해, 연합회 소속 아나운서 중 프로그램을 살리고 아나운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중진을 대상으로 진행 능력 위주로 심사해 만장일치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상을 받고 “공교롭게도 <저널리즘 토크쇼 J>가 1년째 되는 날에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 아울러 <노래의 날개 위에> 애청자분들도 기억한다. 앞으로 김규홍 선배님처럼 유머와 여유를 가진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송옥석 아나운서는 “선배님들의 환대에 힘입어 귀한 상을 받는 것 같다. 선배님들 나오는 TV를 보며 꿈을 갖고 살아왔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며 기뻐했다.

수상 소감 2면에 계속

아나운서클럽 첫 운영 회의, 회장 주재로 5월 8일 열여 정례 모임 전 등 수시로 열여 클럽의 발전 방안 모색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창옥 김규홍 정흥숙 유지현 원종배 황인우 남궁미 채영신 송현식 이계진 김상준 차인태 김채연 차기정 성선경

제9대 차인태 회장 취임 후 부회장, 운영위원, 편집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운영 회의가 5월 8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회장 주재로 김규홍, 김채영, 이계진, 김상준, 원종배 부회장, 채영신 사무총장, 성선경, 정흥숙, 송현식, 차기정, 남궁미, 김창옥 운영위원,

그리고 황인우 편집장, 유지현, 윤지영 편집위원 등 16명이 상견례 겸 함께한 자리였다.

차 회장은 “개인적인 지출은 마다하지 않을 테니, 자주 만나면서 아나운서클럽의 발전을 모색해보자”라고 인사했다.

참석자들은 채영신 사무총장이 준비한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회비 확충과 회원 확대, 예산 절감, 후배 지원, 회원 복지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황금메아리상 선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운영 회의는 정례 모임 전은 물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예정이다.

KBS사우회 30주년 기념해 강찬선 등 유공자 30인 선정 사이버박물관 토대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대표 감사패



김광일 회장으로 부터 선친 강찬선 전 회장의 추대장을 받은 강경혜 씨

김광일 회장으로 부터 선친 강찬선 전 회장의 추대장을 받은 강경혜 씨

앞서 5월 31일 ‘사우회 30년을 빛낸 30인’ 조형물을 제막한 KBS사우회는 기념식에서 30인의 유공자에게 추대장을 전달했다. 고故 강찬선 아나운서클럽 초대 회장이자 사우회 제4대 회장의 차녀인 강경혜 씨가 모친

김길임 여사와 함께 참석해, 30인 대표로 선친의 추대장을 대신 받았다.

아울러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대표는 KBS사우회에 블로그 자료를 무상으로 무기한 제공해 사이버박물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KBS 양승동 사장, 경기대 총장인 김인규 전 사장과 함께 축사를 하러 무대에 오른 차인태 아나운서클럽 회장 겸 MBC사우회장은 ‘내년에 30주년이 되는 MBC사우회와 교류 협력하며 동반상생하자’라고 축하했다.

식전 공연 무대를 장식한 KBS 사우회합창단(단장 전세권) 중앙에서 노래하는 이후재 운영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KBS사우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열린 음악회> 공개방송 관람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방송인동우회 첫 방송터 기념식 개최 우리말을 지키고 독립의 의지를 키운 곳 잊지 말자



(사)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정관영, 이하 방우회)가 주최하는 첫 방송터 기념식이 아나운서클럽 고문인 황우겸 부회장, 엄복영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유희비(遺墟碑)(최만린 고문 제작) 앞에서 아나운서클럽 부회장인 김규홍 이사의 사회로 열렸다.

정관영 회장은 6.25 직전의 방송국 모습을 떠올리며 행사의 의의를 강조했고, KBS사우회 김광일 회장은 축사에서 6월 1일 정식 개관할 사우회 사이버박물관을 통해 방송 역사를 전하며 방송인들의

열정과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영섭 명예회장은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이 JODK란 호출부호로 이곳에서 첫 방송을 쏘아올린 후 단파방송을 수신하며 독립 의지를 키운 일제강점기와 동란을 겪었던 초창기 방송 역사를 전하며, ‘조선어말살정책’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켜왔던 그 정신이 방우회 바른말보도상 제정의 근거라고 말했다.

다음 정례 모임은
9월 5일(목) 오후 6:30 여의도 열빈



제5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KBS 정세진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일 22:30)



1997년 공채 24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클래식 오디세이> <저녁의 클래식> <노래의 날개 위에> 등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KBS 뉴스9> <KBS 뉴스타임8>의 앵커로 활동하며 감성과 이성을 오가는 방송을 해 왔다. 현재 클래식FM <노래의 날개 위에> 그리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새 장을 연 <저널리즘 토크쇼 J> MC로 활약하고 있다. 성신여대에 출강했으며 한국어연구부장을 지냈고, 한국아나운서 대상에서 앵커상을 수상했다. 또한 연세대 영문과 출신의 클래식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작년 6월 도서출판 '쿨'에서 첫 번역서 <젊은 음악가를 위한 슈만의 조언>(스티븐 이설리스 편집·해설)을 펴냈다.

특히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정 아나운서에게 2018한국아나운서대상에서 TV 시사 부문 진행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으며 2019백상예술 대상에서 '대중성과 참신한 기획성으로 한국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인정받으며 교양 부문 TV 작품상을 차지한 바 있다.

아나운서의 존재 가치 입증하는 전문가로 나아가겠다

한없이 모자란 후배를 챙겨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되돌아가지 않고 힘내서 한 발짝씩 올라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그런 선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 그저 아나운서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그 기본을 항상 생각하라고 이 '황금메아리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으로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임해 왔습니다. 성역 없는 비판으로 공영 미디어의 정체성과 언론의 사명을 일깨우는 출연자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따지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된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뜨겁게 응원해 주시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안주하지 않고 탁월한 저널리스트가 되도록 채찍질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1991년 처음 맡은 이래 오랫동안 함께해온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의 은은한 청취자가 되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극동방송 송옥석

FM106.9MHz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07:00)



2005년 입사, 극동방송의 얼굴인 송옥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는 자녀 교육과 성경, 인문학,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다채로운 방송으로 이번 2019 청취율 조사에선 종교 분야 청취율 1위를 차지했다. 방송 오프닝 음성 파일을 글과 함께 제공한 블로그 조회수가 90만을 돌파하며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탈북 청소년 특집 다큐 먼저 온 우리의 미래> <중독-어딤션> <시리아 난민 취재 및 모금 방송> 등 사회 문제를 공감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진행한 것을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및 한국기독언론대상, 한국아나운서대상 장기범상을 수상했다.

2018년 울산극동방송 방송부장을 마치고 중앙사 편성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의 SNS 활성화를 위해 여러 아나운서들과 함께 팟캐스트 프로그램 <보물섬>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언어로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는 방송 하겠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합니다." 영화 <이 보다 더 좋은 순 없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귀한 상을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을 믿고 가르쳐주셨던 극동방송의 임직원과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선배님들의 방송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영양분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참 미숙하고 연약한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매일 다짐하는 것은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란 것입니다. 비난과 고성이 난무하는 시대, 사랑의 언어를 전하고 그 말로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인 다역을 감당하는 극동방송에서 저는 아침 생방송과 여러 공개방송, 다큐 등을 진행합니다. 몸은 피곤해도 기쁨이 큰 이유는, 누군가 살아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북한과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의 마음을 확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벌즈란 약기는 한순간을 위해 기다립니다. 한 번의 울림을 위해 다른 소리들을 배려합니다. 혼자 울리면 소음이 되지만 같이 울리면 깊은 여운이 있습니다. 한 시인은 그 소리를 진주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벌즈의 소리를 닮고 싶습니다. 겸손함과 배려로 진주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바라며, 귀한 상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람직한 아나운서상 이어가며 선후배가 정을 나누니 이 아니 좋을쏜가!





황우겸 고문은 축사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수상자들, 축하한다. 나도 예전에 공개 방송 진행할 때 ‘오빠부대’ 많았지만, 한때더라. 인기가 영원하지 않지만, 아나운서는 영원하다는 것 잊지 마라. 품위를 지키고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febc 맹주완 편성국장은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뚝심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박종세 고문은 건배사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수상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나운서클럽과 수상자의 무궁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며, 건배!”라고 외쳐 ‘왕년의 명야구캐스터답다’는 감탄이 쏟아졌다.

그리고 고 최계환 고문의 장남 최춘식 아나운서가 감사 인사차 참석해, “5월 24일 별세한 선친을 호국원에 모셨다. 많은 분들이 조의를 표해주심에 감사 말씀 드린다. 올해 68세, 이제야 좀 철든 것 같다. 앞으로 아나운서클럽에 나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겠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란

이야길 듣고 싶다.”라고 인사했다. 최 회원은 1981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 1994년 한국스포츠TV를 거쳐 2000년 SBS스포츠채널 아나운서 국장을 지냈다.

5월 16일 부친상, 6월 1일 큰딸 혼사를 치른 황인우 편집장도 “이번에 누군가의 공덕으로 과분하게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과 오래된 전통, 형식은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로와 후의를 보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KBS사우회 30주년 기념식에서 사이버박물관 설립에 기여해 감사패를 받은 이장춘 운영자는 “아나운서클럽과 함께한 지 9년, 춘추동방송에 글을 쓴 지 15년이 되었다. 모두가 자료를 제공하고 성원해주신 분들 덕분이다. 블로그를 근거로 사이버박물관이 되었듯이 앞으로 사이버박물관이 오프라인 박물관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역들 순서에서 아나운서연합회 차미연(MBC) 회장은 “얼마 전 전임 염용석(SBS) 회장에게

감사장을 주었다. 또한 CBS 박재홍 아나운서협회장이 상임 노조 지부장으로 선임되며 유지수 아나운서가 새롭게 협회장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한 후 CBS 신입 유지수 협회장을 비롯해 KBS 이영호, OBS 김준우, febc 송옥석, jtbc 임경진, BBS 김명석 협회장을 소개했다.

MBC 황선숙 아나운서국장은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리말연구팀, 기획팀, 브랜드운영팀, 모니터팀, 아나운서연합회팀 등 팀제를 마련했다. 건강하신 선배님들께 ‘술술 때마다 행복하세요.’란 제 라디오 방송의 클로징 멘트를 드린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즐겁게 보내자.”라고 말했다.

다음날 U-20 축구 결승전을 중계하러 폴란드로 떠나는 이재후 아나운서가 36년 전 방송을 봤다며 “반도 못 따라간다 싶어 절로 겸손해지더라.”, 황금메아리상 제3회 수상자인 윤인구 아나운서가 “매를 맞는다 생각하고 클럽에 오면 사랑을 듬뿍 주신다.”라고 한 것처럼, ‘후배 사랑 선배 존경’의 아나운서클럽 모임이 이 아니 좋을쏜가!



극동방송 김보령 송옥석 서윤영 김고은 맹주완 이계진 부회장 김재익 운영위원 김상준·원종배 부회장 정흥숙·백연숙·차기정 운영위원 아나운서연합회 이영호 유지수 김명석 차미연 김준우

‘후배 사랑 선배 존경’의 아나운서클럽 모임이 이 아니 좋을쏜가!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김보령(febc) 서윤영(febc) 이재후(KBS) 채영신(전 KBS) 맹주완(febc) 송현식(전 KBS) 원종배(전 KBS) 백연숙(전 MBC) 남궁미(전 MBC) 윤희재(전 MBC) 김고은(febc) 차기정(전 CBS) 양진수(전 MBC) 정영희(전 MBC) 최춘식(전 MBC) 김채영(전 MBC) 김상준(전 KBS) 윤지영(SBS) 정연호(전 MBC) 전찬희(국군방송) 이후재(전 KBS) 김재익(전 KBS) 홍소연(KBS) 차미연(MBC) 김성수(전 KBS) 권혁화(전 MBC) 박찬숙(전 KBS) 성선경(전 DBS) 맹관영(전 KBS) 배덕환(전 KBS) 황우겸(전 KBS) 차인태(전 MBC) 박종세(전 KBS) 김규홍(전 KBS) 정흥숙(전 MBC) 황선숙(전 MBC) 김명석(BBS) 윤인구(KBS) 이영호(KBS) 송옥석(febc) 임경진(jtbc) 김준우(OBS) 정도영(전 KBS) 황인우(전 KBS) 정세진(KBS) 박선영(전 MBC)



방 | 송 | 가 | 소 | 식



김진웅 이광엽 이윤정 등 46기 6명 입사



2019년 6월 1일 KBS 46기 6명의 아나운서가 입사했다. 전국권 김진웅, 이광엽, 이윤정, 영남권 송지원, 호남 및 제주권 유도희, 충청 및 강원권 김수연 아나운서다.

이들은 6월 한 달간 아나운서 전문화 교육을 받으며 아나운서실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이화언론인클럽 회장 이규원, 부회장 홍소연 선임



1987년 입사해 KBS 한국어연구부장과 아나운서 1부장 등을 지내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이규원(왼쪽 사진) 아나운서가 5월 9일 열린 이화언론인클럽 총회에서 신임 회장(임기 2년)이 되었다. 또한 홍소연 아나운서가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장, 박혜수 코스모폴리탄 편집장과 함께 부회장을 맡았다.



이영은 <#파워매거진>, 김정현 <뽀뽀뽀> 진행



이영은(왼쪽 사진) 아나운서가 지난 4월 새롭게 출발한 <#파워매거진>(금 오후 12시 25분)을 프리랜서 오상진과 함께 진행한다.

김정현 아나운서는 6월부터 <뽀뽀뽀 모두야 놀자>(월, 화 오후 3시 55분) '꼬마 농부가 될 거야' 진행을 맡았다. 농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도시 아이들의 도농소통에 도움이 되겠다는 각오로 방송에 임하고 있다

손정은, 드라마 <더뱅커>에서 연기 경험



5월 16일 종영한 수목 드라마 금융 오피스 수사극 <더뱅커>에 배우로 출연했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4월 25일 방영분에서 금융감독원 팀장으로 출연해 주연인 김상중과 연기 호흡을 맞추어 관심을 모았다.



김태욱 안식년, 류이라 육아휴직 후 복귀



1988년 CBS를 시작으로 KBS를 거쳐 SBS창립 요원으로 입사한 김태욱(왼쪽 사진) 아나운서가 5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가지만 <김태욱의 기분 좋은 밤> DJ 활동은 계속한다.

한편 류이라 아나운서는 3월 육아휴직 후 <좋은아침> MC로 복귀했다.

신입 김민형 <주말8뉴스> 진행 반응 좋아



2018년 10월 입사한 김민형 아나운서가 3월 23일부터 <SBS 주말 8뉴스>에 앵커로 투입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김민형 아나운서는 '함께 생활하고 싶은 아나운서, 'SBS의 슈퍼루키' 로 활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재홍, 노조 CBS지부장 선임으로 유지수가 아나운서협회장 돼



박재홍(왼쪽 사진) 아나운서가 95%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최초의 아나운서 출신 언론노조 CBS지부장으로 선출되어 6월부터 2년 동안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언론으로 기능하는 지속 가능한 CBS의 미래를 담당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박재홍 아나

운서는 2003년 24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TV <CBS 뉴스>와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앵커로 활약했고 CBS 아나운서협회장,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부회장을 지냈다.

한편 2004년 입사, <유지수의 해피송>(98.1MHz, 1200~14:00)을 진행하는 유지수 아나운서가 아나운서협회장으로 선출되어 송정훈 사무국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장주희, 방일영문화재단 지원 받아 설교 책 저술



장주희 아나운서가 방일영 문화재단에서 2019 상반기 언론인 저술 출판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설득 스피치 중 한 분야인 설교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며 개인별 목표를 찾아가는 코칭 프로세스를 접목 시킨 신간을 준비 중이다.



김준호 유진영, 제5회 창작바다동요대회 진행

'2019 창작 바다동요대회'가 김준호, 유진영 아나운서 진행(사진)으로 5월 18일 방송되었다. 바다동요대회는 바다에 대한 감수성을 심어주고 해양 문화 저변 확대을 위해 2015년에 시작한 동요 축제이다.



유진영 아나운서는 또 6월 15일 린덴 바움 오케스트라와 YB 등이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개최한 평화콘서트를 진행했다.

뉴스 프로그램명 일부 변경

5월 27일부터 오전 뉴스인 <OBS 뉴스 745>는 <OBS 아침 뉴스>로, 저녁 메인

뉴스인 <OBS 뉴스M>은 <OBS 뉴스 745>로 프로그램 제목이 변경되었다.



김혜지, 창립 29주년 특집 <TV책방 북 콘서트> 진행

6월 12일 오전 11시에 방송한 창사 29주년 특집 <TV책방 북 콘서트>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서울책보고에서 진행했다.

'스물아홉'을 주제로 시청자와 출연진이 '자



신의 청춘을 나타내는 책'을 소개하고, 초대 손님인 재주소년, 폴린덜드, 규민, 그리고 색소폰 연주자 멜로우 키친이 음악으로 자신의 청춘을 노래한 시간이 었다.



연등회 실황 TV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

5월 4일 불기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이자 세계적인 축제인 '2019 연등회' 현장을 TV와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에 걸쳐 TV 스튜디오(김명석, 김민영)와 현장(구자준), 특설무대(최은경, 오승진), 그리고 라디오(이선희, 정준영)를 넘나들며,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등 연등회의 전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불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산불로 전소된 영동fabc, 복음 방송은 이어져

4월 4일과 5일 발생한 강원도 강릉, 속초 화재로 인해 전소 피해를 입은 영동극동방송이 청취자들 및 한국 교계의 기도와 성원 속에 임시 사옥을 마련하고 복음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봄철 개편 <힘찬 라디오> <러블리 사운드> 신설

4월 22일부터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북방 프로그램 지속과 생방송 프로그램의 SNS 콘텐츠 활성화에 중점을 둔 봄 개편을 단행했다.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발굴하는 세대 통합 찬양 전문 <힘(hymn)찬라디오>(월~금 19:05~19:35)와 청취자 참여를 강화한 <러블리 사운드>(월~금 15:05~15:40)를 새롭게 선보였고, 특집 다큐 <난민을 품다>를 방송할 예정이다.

전국 아나운서 워크숍 이틀간 개최하며 재정비



전국 아나운서 워크숍이 리셋[Re:set]이란 주제로 3월 22일과 23일 극동방송 사옥에서 진행되었다. KBS 이진희, MBC 김태호 PD 등을 초빙해 뉴미디어 시대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일인미디어로서 재정비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라디오 개편 <오늘도 새롭게 이정민입니다> 신설



6월 3일부터 대대적인 라디오 개편이 있었다. 이정민 아나운서가 <오늘도 새롭게 이정민입니다>(월~금 오전 7시~8시) 진행을 맡았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일상,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신설 프로그램이다.

또 매일 아침 방송되던 <FM 음악공감>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편안한 클래식 선율로 청취자들을 만난다. 가능한 말은 줄이고, 친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지친 하루를 돌아보는 힐링의 시간을 선물한다. 김부궁 아나운서가 제작(월~토)과 진행(월~금)을 맡았다.

청년전례학교, 사제에게 필요한 말하기 교육 실시

김부궁, 김지현, 이정민 아나운서가 5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이 개최한 청년전례학교 중급 과정 강사로 참여했다. 청년 단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례 용어를 비롯해 발음 교정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지승신 아나운서는 5월 27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5학년과 7학년(부제) 신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제에게 필요한 올바른 말하기> 교육을 실시했다. 6월에도 5차례에 걸쳐 '강론'과 '복음 선포'를 위한 조별 실기 교육이 펼쳐진다.



송민교, 오디오 콘텐츠 <라디오가 없어서> 진행



5월 1일부터 방송계 이야기를 담은 JTBC의 오디오 콘텐츠, <라디오가 없어서>를 진행한다. DJ를 꿈꿨던 아나운서 송민교와 뮤지션을 꿈꿨던 절대 음감 PD 방현영이 진행

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서 업로드된다. 현직 방송사 직원들이 직접 방송가의 뒷이야기와 방송의 소재가 되는 다양한 문화계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고, '없' 것에서 나온 창의적인 결과물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한다.

임경진, 골프 채널 <JTBC골프 매거진> 맡아



골프계의 핫이슈를 전달한다.

JTBC GOLF 채널 대표 프로그램 <JTBC골프 매거진>의 새 진행자가 되었다. 한 주간의 국내 투어 소식과 LPGA, 유러피언 투어, KPGA 등 세계의 골프 투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화제 선수와 만남,



초등학교가 한국어 발음 교육 발 벗고 나섰다!

-발음 교육, 아나운서들에게는 강 건너 불인가?-



김상준 (전 KBS 부회장, 언론학 박사)

2018년 초판을 발행하고, 2019년 2쇄를 발행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활동' 53쪽, '기초 다지기'에 나오는 한국어 발음 관련 문제를 소개한다.

1. 'ㄴ'이나 'ㄹ'의 앞이나 뒤에 있는 낱말을 다음과 같이 소리 내어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써 봅시다. <'ㄴ'을 [ㄹ]로 소리 내야 해요.> 한라산[할:라산] 칼날[칼랄] 신래[실라] 연료[열료] <'ㄹ'을 [ㄴ]으로 소리 내야 해요.> 생산량[생산냥] 판단력[판단녁] 통신란[통신난] 반찬류[반찬뉴]
2. '한라산[할:라산]', '칼날[칼랄]'과 같이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소리 납니다. 다만 '생산량[생산냥]', '판단력[판단녁]'과 같은 몇몇 한자어는 'ㄴ' 다음에 오는 'ㄹ'이 [ㄴ]으로 소리 납니다.
3. 낱말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써 봅시다. 훈련[홀:련] 의견란[의:견난] 물난리 [물랄리] 등산로[등산노]

이 문제는 표준발음법 제5장 제20항 '음품의 동화同化'에 대한 규정을 문제로 낸 것이다. 문제의 해답은 교과서의 뒤에 따로 나와 있지만, 1번 문제의 해답은 2번 항에서 거의 제시하고 있다.

'한라산[할:라산]'과 '칼날[칼랄]'은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소리 난다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라[할:라] 칼날[칼랄] 신래[실라]는 'ㄴ'이 설측음舌側音 'ㄹ[l]'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연료[열료]는 'ㄴ'이 설측음 'ㄹ[l]'로 바뀌고, '료'의 'ㄹ'은 구개음 'ㄹ[ʃ]'로 변했다.

생산량[생산냥]과 판단력[판단녁], 반찬류[반찬뉴]는 'ㄹ'이 구개음 'ㄴ[n]'으로 변했다. 그리고 통신란[통신난]은 'ㄹ'이 설단음舌端音 'ㄴ[n]'으로 변했다.

3번 문항 훈련[홀:련]은 훈의 'ㄴ'이 'ㄹ'로 바뀌었다. 그리고 의견란[의:견난]과 등산로[등산노]는 '란'과 '로'의 'ㄹ'이 설단음 'ㄴ'으로 바뀌었다.

물난리[물랄리]는 음성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물'과 '난리'에서 'ㄴ'의 'ㄴ'이 설측음 'ㄹ[l]'로 바뀐다. 이어서 '리'의 'ㄹ'이 구개음口蓋音 'ㄹ[ʃ]'로 바뀐다. [l] [ʃ] 등 음성 기호, IPA는 '표준한국어발음사전'(이규향, 이주행, 김상준)에서 참고하고 있다.

이 중에 몇 문제는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다. 문제 풀이와 관계없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예를 들어 '칼날'과

'물난리'에서 'ㄴ'의 발음을 글자 그대로 '칼·날, 물·난리'로 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예로 '설·날, 한글·날, 물·놀이, 오늘·날, 오늘·날씨' 등도 있다. 이때는 두 번째 형태소 形態素인 '날'과 '놀이'가 'ㄹ'로 바뀐 것을 모르고, 'ㄴ'으로 하려고 애를 쓴다. 초·중·등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들도 상당수가 이 발음을 잘못 한다. 가끔은 아나운서들도 착각하고 있는 발음이다.

초등학교 "국어 활동 기초 다지기"에서 '한라산 漢拏山[할:라산]과 '훈련訓練[홀:련]', '의견란 意見欄[의:견난]'은 자음동화子音同化와 함께 장단음長短音까지 표시하고 있다. 한국어 발음 교육에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발음 교육이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양 국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각 방송사에서도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KBS 한국어연구회를 비롯한 각 방송사 아나운서 부서를 중심으로 학교와 일반사회 대상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회 | 원 | 동 | 정

이규향(전 KBS)

본보 연재 기사로 <재미있는 한국어의 미학> 출간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에 연재되었던 '말을 이야기'를 토대로, 국어의 특성을 쉽게 설명한 최초의 '그림 국어책' <재미있는 한국어의 미학>(형설출판사)을 지난 3월 출간했다. 국어학을 머리로 배운 국문과 출신 국어학도가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면서 배운 실용 국어에 관한 책이다. 36년간 한 직장에서 한 직종으로 근무한 저자는 '사람이 만든 말이 사람을 만든다, 방송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 강조한다.

김성호(전 KBS)

한국언론연구회서 <한국 언론학 설계자들> 기획·출간



언론학 퇴직 교수 모임인 한국언론연구회 창설 20주년을 맞아 회장 겸 총무로서 언론학의 토대를 구축한 언론인 14명을 선정해 14명의 원로 교수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린 글을 의뢰해 <한국 언론학 설계자들>(다할미디어)을 지난 5월 기획·출간했다.

전우벽(전 KBS)

국회 마당에서 차인연합회 창립 40주년 차의 날 행사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 창립 40주년을 맞아 사무총장으로서 「제39회 차의 날 행사로 국회와 함께하는 차문화 축제」를 주관했다. 5월 18일과 19일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우수한 차와 다기를 시상하고 행다례 시연,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보며 아름다운 두레 찾자리를 열어 무료로 핫차를 시음한 차문화 축제였다.

정홍숙(전 MBC) 운영위원

유리디체음악감상회 회장으로서 10주년 기념 행사



왼쪽부터 유리디체 양경림·김춘옥 총무 선병철 지도교수 김재익 회원과 함께

첫 번째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인문학 기초의 DVD 음악 감상 모임 유리디체아카데미(회장 정홍숙, 지도교수 음악평론가 선병철)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6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

577번째 음악감상회이던 이날 정홍숙(사진 중앙) 회장은 아나운서클럽 김재익, 차기정 운영위원을 비롯해 음악 애호가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00번째 시암송으로 선병철의 '선율따라 마음따라'를 들려주어 큰 박수를 받았다.

고민정(전 KBS)

청와대 입성 2년 만에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돼



4월 25일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었다. 고민정 회원은 2004년 KBS 공채 30기로 입사해 <스펀지> <밤을 잊은 그대에게> <국악 한마당> 등을 진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17년 초 영입되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정권 출범 후 선임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부대변인을 거쳐 올 2월에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권혁화(전 MBC)

MBC사우회 한문동호회 훈장, 시흥 평택서도 강의



2011년 MBC사우회 한문동호회에서 배우기 시작해 2대 훈장으로 활동하며, 동네인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고향인 경기도 평택에서 고전 강독을 하고 있다. 권 회원은 "공간만 있으면 비치는 빛처럼, 할 수 있으면 다 빛나는 존재가 아나운서라 생각한다. 건강을 위해 운동과 공부가 필수라고 하니 그에 걸맞은 송독誦讀을 권해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보영(전 MBC)

부산에서 학원 운영하며 스피치 강사로 활약 둘째딸 박세진, 영화 <미성년> 주연으로 데뷔



스피치학원 대표, 부산대·동서대 겸임교수, 인기 강사로 맹활약 중에, 4월 11일 개봉한 영화 <미성년> 주연으로 데뷔한 둘째딸 박세진 양 언론 시사회 일 등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1986년 입사, <장학퀴즈>를 비롯해 뉴스와 특집 방송을 진행한 정보영 회원은 1993년 퇴사 후 EBS에서 프리랜서로 방송하다가 부산으로 이주, 2004년부터 정보영스피치를 운영하며 작년에 「목소리로 어필하라」(한국경제신문)란 책을 냈다. 현재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2013년 SBS슈퍼모델 박세진 양은 jtbc 드라마 <마녀보감>에 출연했다.

전현무(전 KBS)

백상예술대상서 <나 혼자 산다>로 남자 예능상 수상 윤지영(전 SBS) 부군이 제작한 <미쓰백>도 5관왕 쾌거



전현무 아나운서가 5월 1일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MBC TV <나 혼자 산다>로 남자 예능상을 수상했다. 제51회 시상식에서 jtbc <비정상회담>으로 수상한 지 4년 만이다.

한편 윤지영(전 SBS) 편집위원 부군 이정욱 대표가 운영하는 '영화사 배'가 제작한 <미쓰백>은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5관왕에 올랐다.



- 제39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 제38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 제3회 런던동아시아영화제 여우주연상
- 제31회 도쿄국제영화제-아시아의 미래
- 2018올해의 여성영화인상
- 제5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여우주연상
-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 여우주연상, 조연여우상, 신인감독상, 시나리오상



F. 02-6959-7694 T. 02-6959-7693
E. sagol0503@gmail.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9, 예진빌딩 2층

반갑습니다

남산 KBS 70회

11명의 동기생들 함평 주포 한옥마을에 떴다

아니! 70년 남산 출신 아나운서들이 모인다고? 올해 초, 원주방송국장을 지낸 김윤한 형이 전남대 신방과 교수로 전직한 김원태 형을 수소문해 통화를 했다. 그때 김 교수가 정년퇴임하고 함평 주포 해변 한옥마을에서 푸른별한옥펜션을 한다며 펜션에서 모이자고 했다.

그날부터 김윤한 형은 바빴다. 동기생 24명(김기웅, 김성호, 김승진, 김원태, 김윤한, 박교서, 방부순, 서연희, 신상식, 송현식, 오한신, 윤동원, 이명숙, 이명희, 이신웅, 이영숙, 이종태, 이학수, 이후재, 전옥수, 전해진, 정도영, 정문희, 최종숙)을 찾아내야 했다.

그 중 김성호, 김원태, 김윤한, 박교서, 송현식, 오한신, 윤동원, 이명희, 이신웅, 이종태, 이후재, 전옥수, 정도영 등 13명과 연락이 되었고, 송현식 형과 전옥수 언니 외 11명이 3월 19일 함평에서 1박 2일 여행하기로 했다. 오랜만의 해후를 기대하며 우리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3월 15일, 김원태 형으로부터 카톡방에 일정이 올라왔다.

만날 날이 나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주 오한신 씨가 승용차로 오신다니 기동력이 좋아졌습니다. 3월 19일 12시 20분 용산역에서 KTX 타고 2시 21분 나주 도착. 동기생들은 먼저 도착한 이명희, 정도영 씨와 나주역에서 2시 21분에 집결, 김원태와 오한신 형의 승용차로 함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변 산책, 영광 백수해안도로 드라이브, 영광 법성포 1번지식당에서 한정식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주포로 귀환, 푸른별한옥펜션에서 바베큐와 노래방, 날씨가 좋으면 영광이나 함평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함평 돌머리해변 저녁노을 동영상 보내드립니다.

드디어 3월 19일 오후 2시 21분, 용산역에서 출발한 김윤한, 김성호, 박교서, 윤동원, 이신웅, 이후재와 공주역에서 합류한 이종태, 오전에 도착해 나주를 둘러본 이명희 언니와 정도영 형, 청주에서 자가용을 끌고온 오한신 형, 함평의 주인장 김원태 형과 대합실에서 반갑게 해후했다.

20대 청년이 70대 노장으로 변했으나 그때 그 시절, 그 모습이다. 49년 만에 나주역이 떠나가도록 시끌벅적 인사를 나누고 모임을 주선한 김윤한 형과 초대한 김원태 형의 인사말을 들었다. 나도 잠깐 보냈다. "집사람이 우리들의 1박 2일이 달콤하기를 바라며 와플을 구워 잼을 발라 주었으니 한 쪽씩 드세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4시 10분, 함평 주포해변 한옥마을 푸른별한옥펜션에 도착했다. 미세 먼지도 걷힌 최상의 날씨에 밝은 햇살을 받은 주포 바다와 한옥 펜션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안주인 마님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 짐을 풀고 다과를 나누었다.

5시 20분, 다시 영광 백수해안도로, 우리나라 10대 명승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름다운 해변도로이다. 춤추듯이 해변을 거닐다가 낙조를 감상하러 전망대로 올라, 따뜻한 커피와 차를 마시며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다. 6시 30분 수평선으로 가까워지던 해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우리는 다시 영광 법성포 1번지식당으로 달렸다. 김원태 형이 주문한 한정식 밥상에 11명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맛있게 식사를 했다. 7시 30분, 거나해진 우리는 취중 잡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며 푸른별한옥펜션으로 돌아갔다.

주인장 김원태 형이 바비큐를 만들어 술잔을 돌리면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날렸다는 가슴 아픈 일, 종친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 아들딸 잘 키워 출가시키고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산다는 얘기 등등으로 49년의 숨겨진 역사를 풀어냈다. 다행히 부부 이별 얘기는 한 사람도 없어서 반갑고 고마웠다. 노년에 부부가 백년해로 해야지, 90여 분간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노래방 기계를 틀어 밤이 깊도록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지나서 한두 사람씩 잠자리에 들었다.

20일 아침, 정도영 형은 5시에 기상해서 주포해변을 3시간이나 산책했고, 8시까지 늦잠을 잔 사람도 있고, 모두가 편한 대로 일어나 이명희 언니가 끓여준 라면과 김원태 형이 집에서 키운 토종닭 유정란으로 아침식사를 했다.

9시, 마당에 둘러서서 한옥펜션의 하룻밤 소감을 나누고 모임 명칭을 <남산70회>로 가칭하고 1년에 한 번정도 정기 모임을 갖자고 입을 모았다.

시인 이후재 형이 자작시를 낭송했다.

영광 해넘이

마이크 앞에서 재치 부리던 70년생 아나운서들 서울에서 날아올라 나주와 만나고 함평 주포한옥마을에서 해후하네 그 시절 목소리가 하얀 머리를 보고 서로 웃다가 백수해안도로로 해서 영광 칠산바다와 마주쳤네

오늘도 춤추는 낙조 앞에 저마다 회한의 메시지를 던지네

아, 세상은 무대, 우리는 배우 나, 나의 연기는 여기까지, 황혼길이 열리네 운, 운무에 펼쳐 준 황금 비단이 황송하구나 서, 서러워마라, 울며 전하는 갈매기의 격려를 해 넘어간 포구에 등갯불 하나 나머지 여정일랑 동행하자고 하네.

모두 박수를 치며 이후재 형의 시를 감동으로 선물받았다. 그리고 나서 김원태 형이 드론을 조립하고 돌머리해수욕장 바닷길 구름다리도 갔으나, 바다 깊숙이 뻗어있는 구름다리에서 황홀한 낙조를 감상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10시, 바다를 하늘에서 조망하는 새로 만든 120미터 칠산타워. 함평군에서 주포한옥마을을 만들고 칠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954 KBS 입사
1961 MBC
1964 RSB(TBC 전신)
1973 KBS 등 3사 아나운서실장 역임
1969 한국방송대상 특별상 수상
2004 방송인 명예의전당 헌정
2019 5월 24일 향년 91세로 별세

최계환(전 KBS) 고문



1962년 MBC 대전 전국제천 중계 신입 김영우(오른쪽) 아나운서는 견습 중



1964년 RSB <사랑방대학> 제1회 공개방송



1971년 KBS <9시의 스튜디오> 출연자 호현찬(왼쪽) 공동 진행자 박찬숙

타워와 섬을 잇는 육교를 세우면서 함평의 나비축제와 함께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발 아래 유리 판으로 보이는 120미터 아래 작은 배들이 아찔아찔하다.

12시 30분, 나주곰탕집에서 길게 줄을 섰다. 나주 명품 9천 원짜리 나주 곰탕을 먹으러 온 관광객이 많다. 나주 곰탕은 김윤한 형이 회장 턱으로 뱀다. 함평 비빔밥은 다음에 먹기로 하고 김성호 형이 주문한 함평 막걸리로 석별의 정을 달랐다.

2시, 나주역에서 이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해서 25년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기로 맹약을 하고...

글 / 이종태(전 KBS)

1970년 입사

KBS대구 아나운서부장, 편성제작팀 선임 차장
2008년 퇴임 후 한남대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수료
중국 난징 샤오쑹양대학교 한국어학당 원장 지냄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윤한 윤동원 이명희 정도영 이신웅 이후재 이종태(필자) 박교서 김성호 오신환 김원태



그때 자기가 하지 않은 것들

글 / 위진록(전 KBS) 재미在美 수필가, 음악 칼럼니스트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 있다. 당시 USC 교수였던 레오 부스칼리아(Leo Buscaglia)가 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Living, Loving, Learning)>. 우리 아나운서클럽 회원 중에도 기억하는 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스칼리아 교수는 당시 미국의 교육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목표, 이른바 '진정한 인간형을 양성하는 판에 박은듯한 목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더 자유스럽고 사물에 대해 감동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숫자로 판단되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 당국에 부탁해서 '사랑의 교실'이라는 클래스를 개강하였다.

처음에는 20명에 불과했던 학생들이 얼마 후에 200명으로 늘고, 600명 이상이 대기자 명단에 항상 등록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그리고 그때의 강의록을 정리한 책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임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부스칼리아 교수의 이 책과 만난 것은 50대 초반, 그러나 대학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펼친 그의 강의 내용에서 전혀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의 유니크한 생각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그 감동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나는 만 90세가 된 지금도 가끔 이 책을 서가에서 뽑아 낼 때가 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어제도 내일도 현실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부스칼리아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서술한 감명 깊은 글이다.

"어제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제는 이미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일은 어떨까. 내일을 꿈꾸는 것은 즐겁고 또 내일은 꿈을 의탁하기에는 합당하지만 그러나 내일도 현실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지나간 어제나 다가올 내일을 꿈꾸며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진정한 현실, 우리가 만져 볼 수 있는 현실은 지금뿐이다. 내일은 너무나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한 부스칼리아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 다음 순간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한 다음 한 여학생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 좀 썩스러운 얘기지만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시를 읽었을까. 제목도 없는 시에 스스로 제목을 붙이고 알기 쉬운 나 자신의 말로 번역한 이 평범한 시가, 이 늙은 마음을 안타깝게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때 자기가 하지 않은 것들

자기 생각 나? 내가 자기의 새 차를 몰고 나가 찌그러뜨렸을 때의 일을. 발버둥치며 화낼 줄 알았으나 자기는 그러지 않았어.
자기 생각 나? 내가 자기를 바닷가에 끌고 갔을 때의 일을. 자기는 비가 올 거라고 하였어. 그리고 역시 비가 억수로 쏟아졌지. 그러게 내가 뭐랬어? 라고 꾸짖을 줄 알았으나 자기는 그러지 않았어.
자기 생각 나? 자기가 질투하는 것이 보고 싶어서 내가 다른 남자 친구들과 놀러 다니던 얘기 하였을 때 자기는 역시 질투하는 눈치였어.
나는 그때 절교당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기 생각 나? 내가 포털 댄스파티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청바지 차림으로 갔을 때의 일을.
이제 정말 절교당하는 줄 알았으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때 자기가 하지 않은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
자기는 내가 하는 잘못을 참아 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감싸 주었어. 그 대신 이번에는 내가 자기에게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어.
자기가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그러나 자기는 돌아오지 않았어.



어머니와 매니큐어... 영순이 누나

카톡에서 제433회 서금랑 영상 전시회를 보고

저는 어릴 때 영화배우나 외국인 또는 에레나가 된 순이가 츄임깁 씹어가며 손톱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머잖아 저희 오마니가 매니큐어 칠을 하고 다니시는 걸 보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고 창피했습니다.

당시 저는 신노랑진에 있었던 '노랑진국민학교' 3학년 에 다니고 있었는데... 오마니는 눈치도 없이 그렇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아니 칠하고 학교에 나타나시곤 했습니다. 물론 오마니가 왔다가 즉시 저는 아이들로부터 놀림의 표적이 되곤 했지요. 놈들은 "야! 너네 엄마는 딱 니 누나 같더라! 정말 니네 엄마 맞니?" 하면서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생각에 이 모든 게 매니큐어 때문이라 생각하던 나는 그 '원수의 매니큐어' 를 오마니 화장대에서 훔쳐서 내다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큐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오마니가 평창 진부가 고향인 식모 영순이 누나를 다그치게 되었고, 저는 정말 그 착한 영순이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과 연민 등으로 몸 둘 바를 몰라 했지요.

하여튼 그 다음날 도시락을 싸들고 온 영순이 누나가 여느때와 달리 슬픈 어투로 "오늘이 너한테 도시락 갖다주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그러잖아도 영순이 누나의 눈길을 피해왔던 저는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왜 그러는데?..." 운운하며 영순이 누나의 안색을 살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희 오마니는 영순이 누나에게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냥 영순이 누나가 청소를 하곤 하니깐 "매니큐어 혹시 못봤냐?"고 가볍게 물어보셨고, "모른다." 하니깐 "어, 그래? 그럼 다음 화장품 아줌마 오면, '두 개 놓고 가라' 그래라!"라고 하신 것뿐인데, 순진한 영순이 누나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몇일 전 내가 안방 화장대에서 오래 머물렀던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기도 뭐 했을 테지요.

이윽고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오마니에게

"영순이 누나가 왜 그만두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마니가 "야! 영순아? 야가 하는 소리가 뭐 소리가? 너, 야한테 무슨 소리헐?"하고 말씀하시자, 얼굴이 빨개진 영순이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방바닥에 떨어진 눈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사실은요... 사실은요..."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해, 주체 못하고 '으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 내가 한 일이고 영순이 누나는 하나도 잘못 없으니 차라리 나를 내쫓아 달라'고 울면서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후 정황을 안 오마니는 도리어 한바탕 웃으시더니 저에게 '영순이 누나, 잘못했습니다!' 큰소리로 세 번하고 큰절 한 번 올리라고 하였고, 안심이 된 저는 정말 큰소리로 "잘못했습니다!" 삼창 후에 큰절 한 번 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오마니는 좋아하시던 매니큐어를 일절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후 영순이 누나 시집 보낼 때는 정말 서울 장안의 내로라 하는 집 못지않게 넉넉한 혼수 갖춰서 보내주었습니다.

두서없이 썼습니다만, 어머니 가신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지만 매니큐어만 보면, 아무리 어려 철없어도 어머니 좋아하셨던 기호를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휘방놓았던 걸 생각하면, 그저 철부지처럼 눈물만 납니다.

하여 오늘날 이렇게 4차원적인 매니큐어 아트를 접하는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서금랑 작가 겸 선배님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울컥하여 쓴 글이라 다분히 유아적이라도 헤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 고광수(전 KBS)

1979년 입사
<전국노래자랑>
<지금 북한에선> 진행
2006년 퇴사
중국국제방송 한국어 지도 교수 지냄



| 알림 |



고맙습니다

6월 10일까지 입금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이후재(전 KBS) 100만 원



김채영(전 MBC) 100만 원



성선경(전 KBS) 30만 원



양승현(전 MBC) 뉴욕에서 20만 원



위진록(전 KBS) LA에서 33만 원



김재익(전 KBS) 30만 원



김윤현(전 KBS) 30만 원



황인우(전 KBS) 30만 원

축하합니다

- 채선아(CBS) 7월 13일(토) 오후 5시 신도림 라마다호텔에서 직장인과 혼인
- 양진수(전 MBC) 7월 7일(일) 오후 2시 서울대 캠퍼스 라쿠치니웨딩홀에서 아들 준식 군 혼사
- 유애리(전 KBS) 6월 15일 딸 박채원 양 혼사
- 신은지(대구fbc) 6월 15일 대학원생과 혼인
- 이윤아(SBS) 4월 21일 혼인
- 정지원(KBS) 4월 6일 독립영화 감독과 혼인

조의를 포함합니다.

- 최계환(전 KBS) 5월 24일 본인상
- 황인우(전 KBS) 5월 16일 부친상
- 윤성원(전 KBS) 5월 2일 장모상

수고하셨습니다

- 장성규 5월 9일 jtbc 퇴사
- 조수빈 4월 19일 KBS 퇴사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